

겨울 탄천... 물놀이장이 얼음썰매장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야탑동과 태평동 탄천 둔치에 각각 개장한 얼음썰매장에서 아이들이 썰매를 타고 있다.

- 운영기간: 2004.12.19 ~ 2005.2.18(겨울방학기간)
- 운영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 이 용 료: 입장 및 썰매 대여 무료
- 문의전화: 탄천관리과 729-5912

미리보는 설 풍경 하나...

중앙공원 민속놀이장



지난해 12월 1일부터 개장한 중앙공원내 민속놀이장. 구경나온 가족들이 널뛰기도 하고 윷놀이도 하며 미리부터 설 연휴를 만끽하고있다.
민속놀이장은 오는 2월 28일까지 겨울방학기간 동안 운영된다.

- 놀이종류: 투호놀이,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굴렁쇠놀이, 팽이치기
- 운영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 이 용 료: 무료
- 문의전화: 공원운영과 729-5331

미리보는 설 풍경 둘...

제4회 성남시 민속연날리기 축제

2월 20일(日) 10시부터,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

설 명절을 기념하여 오는 2월 20일(일)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에서 '제4회 성남시 민속연날리기 축제'를 연다.

성남문화원이 주최하고 성남시와 시의회 등이 후원하는 이 행사에는 기관단체장, 대회참가자, 관람시민 등 약 1천명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연날리기 대회에선 대형연 싸인회와 연날리기 시연에 이어 초·중·고와 일반부는 '멀리 날리기', 전문가 부문은 '연실뜨기', 초청전문가는 '창작연부'로 나뉘어 경

기를 진행한다.

식전행사로는 신미경과 춤사랑무용단의 전통무용, 판소리 보존회 성남지부의 판소리, 풍물놀이 판굿이 마련돼 있고, 부대행사로는 연날리기 체험을 비롯해 가훈 써주기(100명), 널뛰기·투호·제기차기·팽이차기 등이 펼쳐진다.

문의: 성남문화원 729-5600





남아시아 지진피해

긴급 구호 의약품 지원

市, 성남시의사회·약사회, 종합병원 등 1억여원 상당



▲ 구호 의약품 전달 후 이대엽 성남시장(가운데)이 관내 의료단체 대표들과 함께

지난해 12월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구호의 손길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와 관내 의료단체, 종합병원 등이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부상자 및 질병 치료와 이후 예상되는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성남시의사회(회장 노광을), 약사회(회장 김순례)와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차병원, 재생병원 등 종합병원과 함께 지난 1월 18일 오후 성남시청

에서 경기도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에 응급구호의약품을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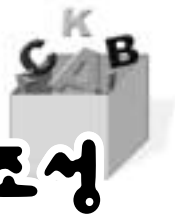
이들 지역에 지진과 해일 피해가 발생한 직후인 12월 31일 성남시의사회, 약사회와 함께 긴급관계자 대책회의를 갖고 이들 나라에 필요한 약품의 종류 및 수량 등을 파악하여 현지 질병치료에 긴급하게 필요한 항생제, 피부질환치료제 등 88개 품목 1억여원 상당의 의약품을 이들 의료단체와 종합병원 등과 함께 지원하게 된 것이다.

전국 기초단체로는 처음 있는 일로 인류애와 인도주의 실천이라는 큰 의미와 함께 시 관내에 거주하는 이들 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희망과 화합의 계기가 되었다.

문의: 보건위생과
보건위생팀 729-2310

성남에도 올해

영어마을 조성



교육·체험·놀이를 영어의 일상화 가능

우리 시에도 올 하반기 영어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영어마을을 조성한다.

시가 추진예정인 영어마을은 해외에 나가지 않고 영어권 문화체험과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영어교육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경감은 물론 영어의 생활화를 위한 영어 인프라 구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영어마을이 조성되면 △ 영어구사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등 교육 △ 직업별, 기능별, 체험학습을 통한 실생활 적용 등 체험 △ 생활체육, 스포츠, 레저, 문화생활을 도입한 복합 놀이가 조화되어 재미있고 즐겁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영어의 생활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영어마을은 서울 송파구 풍납동과 경기도 안산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 영어마을이 운영되면 성남시가 전국에서 3번째다.

문의: 영어마을T/팀 729-3940~3

작은 관심과 실천, 버들치가 뛰노는 탄천 만든다

세탁기 배수관은 반드시 오수관에 연결해야



시가 '탄천수질 1급수 만들기' 등 탄천살리기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탄천오염은 기존 우수관과 오수관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탄천에 설치된 우수관으로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데서 발생하고 있다. 가정에서 세탁기 배수호스를 베란다에 설치된 우수관으로 연결, 세탁수가 흘러들어가는 사례를 비롯해 ▲ 음식점에서 우수관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배출하는 사례 ▲ 도로에서 세차, 오일교환 등으로 바다에 떨어진 폐유가 빗물에 섞여 우수관으로 흘러가는 사례 등 일상생활에서 무심하게 오수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 차량세차와 오일류 교환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 가정의 세탁물, 베란다 청소물, 상가의 식당, 세탁소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반드시 우수관으로 배출해야 한다. 특히 세탁기의 위치를 베란다가 아닌 원래의 위치로 옮기고, 배수관은 오수관에 꼭 연결해야 한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이면 탄천을 버들치가 뛰노는 1급수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환경보전과 대기수질팀 729-2721

성남시, 전력·통신선 등 지중화 사업 추진



도로환경개선... 중앙로·공단로 전력선 등 9.4km

시는 도시 공간구조를 아름답게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력 및 통신 등의 전선을 땅 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내년까지 추진기로 했다.

지중화 대상은 중앙로와 공단로 2개 노선의 전력선, 케이블 TV선, 정보통신선으로 한국전력, 아람방송, 파워콤, 하나로, 두루넷, SK글로벌, 데이콤, 엔터프라이즈 등 9.4km이다.

이를 위해 시는 총 소요 사업비 165억3,700만원 중 한전과

각각 50%를 투자, 중앙로의 지중화 사업에는 48억5,900만원을, 공단로 지중화 사업에는 34억1천만원 등 총 82억6,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중앙로 시설계에 들어가 올해 말까지는 전선지중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단로 지중화 사업은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도시개발과
특수개발팀 729-4530

「성남시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저소득 알코올 환자들을 위한 성남시 알코올 상담센터가 지난 1월 3일 설치, 운영되고 있다.

수정구 수진동 4612번지(모란고개) 45평 규모에 설치된 이 센터는 정신과전문의 1명을 비롯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총 9명의 전문인력이 상주하여,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 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한다.

이 센터는 방문 및 내원 상담을 통해 저소득 알코올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문의: 성남시 알코올 상담센터 751-2768~9



新年辭



2005년(乙酉年) 새아침에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집시다



건설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안정된 시정을 펼침과 동시에 그동안 추진해온 모든 정책들을 하나하나 매듭지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먼저,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시민, 사회단체와 연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어려운 서민에게 나눔과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안정된 도시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정·중원구 도시구조의 틀을 바꾸는 주택재개발사업과 더불어, 도로변의 전기·통신 등 선로를 땅 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통해 재산가치와 도시 미관을 대폭 향상시키겠으며, 이와 같은 대단위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판교 개발은 우리 시민에게 주택 30%를 우선 분양할 뿐만 아니라 자족이 가능한 친환경 신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정자동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를 올 상반기에 준공하여 해외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지원하겠으며, 야탑동 전자부품연구원과 산·학·관 협력협의회를 네트워크화하여 중소·벤처 기업에 신기술 지원을 확산시킴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촉매제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민 50% 이상 의무고용제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市) 보유기금(14개 1,529억원)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서민생활이 보다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에 힘쓰겠습니다.

금년 5월, 성남에서 개최하는 제51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많은 참여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 10월, 문화예술의 전당을 개장하여 시민들이 문화체험의 기회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청소년 영어캠프와 영어마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국제적 감각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란민속시장을 우리 시의 지역 브랜드로 특화하여 세계적인 관광테마공

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끝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탄천에 건강체험코스과 연꽃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물고기잡기 행사도 개최하여 성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도심속 복합 소공원 조성과 시가지 울벽에 담쟁이 넝쿨식재, 남한산성 계곡에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푸르름이 어울어진 도시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우리 시가 인구 100만을 돌파하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본인은 앞으로도 복지·경제·문화·환경·자치 등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동반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금지와 사명감으로 성남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의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희망의 을유년(乙酉年) 새해를 힘차게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첨단·환경도시인 e-푸른성남을 바라보며, 100만 시민 모두의 큰 포부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시민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을유년(乙酉年) 새해 아침

성남시장 이 대엽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2,30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을 가득 담은 을유년(乙酉年)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100만 시민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외적으로 유가불안과 소비위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 동안 맘 흘려 축적한 시 승격 31주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는 장년의 첫발을 내딛는 한층 성숙한 도시로의 도약을 확인한 해였습니다.

10여 년 동안이나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모란 시외버스터미널을 야탑동으로 이전하고 모란고가도로를 1년여 앞당겨 개통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색이 없던 탄천에 물놀이장과 모래사장을 개장하여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탄천이 버들치 등 많은 토종물고기와 철새가 찾아오는 하천으로 탈바꿈되고 있음은 큰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가중한 조세정책으로 빚어진 재산세 76억원을 전국 최초로 시민에게 돌려 드린 사례는 지방자치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10여 년 이상이나 혼미를 거듭하던 행정타운 건립은 여수동 일원에 주택단지와 함께 2005년 말에 착공하여 100만 시민의 일체감 조성은 물론, 도시가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특히, 행정타운의 시정사는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국제공모 등을 통해 성남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 시정사는 기존 시가지의 지역경제가 슬럼화 되지 않도록 시민, 전문가 등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최적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자랑스런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와 실업률 증가는 새해를 여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가 있는 도시를 향해 더욱 큰 걸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수도권을 대표하는 중심도시

무인 민원증명발급 서비스 · 인감증명발급기관 확대

시청 · 구청에서도 발급가능



시는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지난 1월 시청 민원실에 설치한 데 이어 2월중 7대를 구청별 2~3개소씩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현행 격주 토요일 무제 실시로 오는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2·4주 토요일에는 창구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휴무토요일에는 무인 민원증명발

급 외에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청에서는 토요일민원상황실을 운영, 민원안내를 하게 된다.

무인 민원 서비스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총 11가지이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의료급여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농지원부, 병적증명 등 8종으로 발급 시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외에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도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시청 · 수정구청 · 분당구청 민원실, 수정구 양지동사무소, 모란역사, 금곡동사무소

한편 올해 1월 17일부터 기존 동사무소에서만 발급하던 인감증명을 시청과 구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수수료는 주소지 구분 없이 1통에 600원이며, 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이용하면 인감증명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 민원제도팀
☎729-3341

분당-수서 도시고속도로 악취 사라진다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및 고도처리로 개선



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 제거를 위해 총사업비 650억 원을 투입, 오는 4월부터 증설공사

및 고도 처리에 들어간다.

이는 하수발생량의 증가로 인한 하수처리장의 부족과 2008년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것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2차 처리시설인 표준활성슬러지법을 3차 처리시설인 고도처리로 개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시설용량을 현재 하루 22만톤에서 24만5천톤으로 증설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4개 하수처리장에 덮개를 설치하고 탈취설비를 증설할 계획이다.

예정된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이 2007년 완료되면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겪던 악취 고통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수처리과 하수시설팀
☎729-5810

위기가정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3월 말까지 연장

☎1688-1004 ·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의료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시가 가족해체, 아동학대, 노인방치, 모·부자세대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의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당초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해 3월 말일까지 연장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위기가정 SOS상담소(☎1688-1004)에 전화하거나,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실태조사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생계비는 가족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의료비는 당초 가구당 100만원 지원되던 것이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지급된다.

여성정책과 여성생활팀
☎729-4120~2
주소지 동사무소

중소기업육성자금 업체당 최고 5억 용자 및 공장세 완화

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기간을 연장하고 관내 8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지원하고 있다.

용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체와 벤처기업 등이고 용자한도는 업체당 5억원 이내이다. 용자지원 희망 업체는 시 홈페이지(www.cans21.net)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기업체 주거래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체는 이자의 2%를 시에서 부담함으로써 저리 용자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제난 분담차원에서 연리 5% 이하라는 획기적인 저금리 대출은행이 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는 연리 3.95%~4.95%로, 한국씨티은행은 4.9% 이하로 저리용자를 하고 있다.

또한 시에서는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의 소진 및 보증 한도액의 초과 등으로 적기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 특례보증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보유세 강화에 따른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기업의 세부담 가중이 예상됨에 따라 시에서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생산시설(공장)의 건물 용도별 지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관내 대상 공장수는 2,688개소로 총 3억8,800만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729-3810~4

자동차세 1월중 미리 내면 10% 할인!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1월 중에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특히, 승용자동차의 경우 2001년 7월 1일부터 연식에 따른 차등과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된 차량은 매년 5%씩 최고 50%까지(12년 이상 차량) 경감되고, 경감된 세액을 일시에 선납하면 다시 10% 할인혜택을 받게 되어 실제 납세할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해당 구청에 방문 및 전화신청 또는 시 홈페이지(cans21.net)를 통해(지방세 안내→세무행정서비스→인터넷신청→자동차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청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한편 올해 1월 1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일정한 면허 등을 가진 자는 1월 31일까지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정과 시세운영팀 ☎729-3520

구청 세무과 수정구 ☎737-2121~5

중원구 ☎750-2121~5 분당구 ☎710-2121~5

2005년 표준주택가격 공시

- **공시(가격) 기준일** : 2005년 1월 1일
- **표준주택 수** : 135,000호
- **공시사항** : 표준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및 형상, 도로·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 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 **열람장소** : 표준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 **이의신청방법** :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가능. 단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제출(서식은 구청에 비치)

세정과 시세운영팀 ☎729-3524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오는 3월부터 지원되는 여성발전기금 사업은 총 1억3천만원 규모로 사업당 1,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하는 여성관련 단체 및 비영리단체로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촉진사업, 자원봉사활동사업, 취약계층여성지원, 여성의 취업증대 사업 등이며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련단체에서는 1월 31일까지 시청 여성정책과로 사업신청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여성정책과 여성정책팀 ☎729-4110~3

『경기청년뉴딜』 사업 구직자 모집

성남권 2차 2. 1(화) ~ 15(화)까지



자격은 15세 이상부터 29세 이하의 청년구직대상자로 주소지가 경기도이며 고교 및 전문대 졸업 후 2년 이내자를 우선 선발하며 교육참여 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최장 10개월로 1회차의 경우 2월 1일부터 12월까지이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 및 자기소개서, 각종 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를 갖추어 취업정보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인원은 1~2개월의 밀착상담기간과 교육훈련, 직장체험기간을 거치게 된다.

지역경제과 고용안정팀 ☎729-3745

시는 경기도의 '경기청년뉴딜' 사업 추진에 따른 구직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경기도 전체를 6개 권역으로 나눠 800명을 선발하며 성남시는 과천, 하남, 광주시 및 양평군과 함께 성남권으로 총 4회에 걸쳐 16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1회차는 1월 3일부터 15일까지, 2회차는 2월 1일부터 15일까지, 3회차는 3.2일부터 15일까지, 4회차는 5월 2일부터 15일까지이다. 모집대상은 경기도내 청년실업자로 1, 2회차는 전문대졸이상, 3, 4회차는 고졸 이하자를 모집한다.

『경기청년뉴딜』 사업이란?

경기도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직자 개인별로 전담 취업 서포터즈를 배치하여 구직자의 특성 및 적성을 파악하고, 취업적합 업종 분석과 그에 따른 직업 훈련 및 직장체험 알선 등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구직자가 자신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직자 맞춤형 종합취업 프로그램으로서 경기도 주관으로 2005년 2월부터 취업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2005년 고용촉진훈련생 모집

고용보험미적용 실업자 대상... 2월 14일까지

시에서는 시 거주 실업자를 대상으로 2005년도 고용촉진훈련 참가 희망자를 모집한다.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아 기술, 기능을 습득하여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이번 기회에 신청하면 된다.

훈련 직종은 간호조무, 자동차정비, 보일러, 고압가스 냉동기계 등 4개 직종이며 훈련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간호조무 12개월, 자동차정비 6개월, 보일러와 고압가스냉동기계 각각 4개월 과정으로 실시된다.

훈련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 등재자로 고용보험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사람을 제외한 실업

자로 비진학청소년, 군전역자, 1년 이내 전역예정자, 국민기초수급권자(자활훈련대상 제외), 모자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중 취업보호대상자, 농림어업인, 출소자 등 현재 실직상태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게 된다.

훈련희망자는 훈련수강신청서, 구직표, 건강보험증사본, 개인별직업훈련상담카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동사무소에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역경제과 고용안정팀 ☎729-3744~5

We Start, '아동건강지킴이' 로 나서

분당서울대병원 · 메디피아의원 등 관내 의료기관 후원

시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건강·복지·교육의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목련마을의 'We Start' 운영센터가 지난해 12월 0세부터 12세까지 11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검진대상자 89명에게 관내 의료기관의 후원으로 무료로 진찰 및 치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로 분당서울대병원의 후원으로 그동안 수술비용이 없어 치료를 미뤘던 지체장애자 1급 김00씨의 자녀(2세)가 생식기 음낭수종수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시력에 이

상이 있어 재검을 하게 된 아동 8명은 검사 후 안경을 지원받게 됐고, 그 외 빈혈치료, 발육부진 정밀검사, 간염보균자 검사와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메디피아의원에서는 치과 치료 아동 55명에게 활인 및 무료진료를 할 예정이며, 분당구보 건소에서도 B형간염예방 접종 및 소변 재검사를 지원하기로 해 지역내 의료기관에서 We Start 마을 아동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여성정책과 We Start팀 ☎729-4160

『2005 라스베가스 소비재 전자박람회』

성남 8개사, MP3 Player 등 1천만불 수출계약 이뤄



(재)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 김봉환)은 지난 1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규모의 전자박람회인 '2005 라스베가스 소비재 전자박람회 (CES 2005)'에 닉스전자 등 관내 기업 8개사를 파견, 6,600만불의 수출상담 및 1,000만불

의 계약성적을 올렸다.

올해 주요 관심 제품은 플래시 메모리 분야와 LCD모니터, 음향기기(A/V)로, 전 세계 2,400여개의 우수 전자, IT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2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퍼스널텔레콤(주)는 디지털 카메라 기능을 갖춘 MP3 Player를 선보여 3,200만불, (주)LPS 디바이스는 TFT-LCD 모니터를 내놓아 920만불, 코스텔(주)가 주방용 TV Phone을 출시하여 650만불의 상담 성과 등을 거두었다. 이중 퍼스널텔레콤(주)가 660만불, 네트워크 카메라 전문기업

인 (주)아이테크이 145만불의 계약실적을 거두는 등 전시 마지막 날까지 미국, EU 등 각국의 유력바이어들과의 막바지 수출계약 상담에 분주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은 KOTRA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후속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오는 3월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CeBIT에 관내 10개사의 참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향후 성남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사업부 ☎758-9145

『2005 베트남 엑스포 종합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 전시기간 : 2005. 4. 6~10(5일간)
- 전시장소 : 베트남 하노이 Giang Vo Exhibition Center
- 주최자 : VINEXAD(Vietnam Trade Fair & Advertising National Company)
- 전시품목 : 농수산물, 건축자재, 화학 및 비료, 가구, 플라스틱, 전자제품, 기계류, 의료장비, 광산장비, 종이 및 제지, 가공식품, 섬유 및 직물 등
- 모집대상 : 관내 제조시설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업체 5개사
- 지원사항 : 부스임차비 및 기본장치비의 100%, 전시품운송비(1CBM 한도), 공동 홍보 브로셔 제작, 통역지원(1사1인) 등
- 접수방식 :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
- 신청양식 : 홈페이지(www.snip.or.kr), 성남벤처넷(www.snventure.net)에서 다운로드
- 문의 : 성남산업진흥재단 사업부 마케팅지원팀 ☎758-9145, 팩스 758-9108
주소 : 수정구 수진동 587 성남벤처빌딩 302호(우461-804)

가정 및 일반 법률 무료상담

• 일반법률 무료 상담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사, 형사, 주택매매, 임대차, 신용불량자 등 일반법률 전반에 걸쳐 관내 변호사가 여성복지회관을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다.

• 가정법률 이동상담소 운영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문상담원이, 부부문제, 남녀관계, 가정폭력, 고부갈등, 자녀문제 등을 상담한다.

성남시여성복지회관 ☎729-4151, 745-3071

제18기 할머니대학 수강생 모집

- 교육기간 : 2005. 2. 15 ~ 7. 16(5개월 과정)
 - 모집과목 : 실버종이접기, 노래교실, 컴퓨터교실(초·중급), 한문교실(초·중급), 실버댄스 스포츠
 - 수 강 료 : 무료
 - 접수기간 : 2005.2.1~2.14(수정구 단대동 70번지)
 - 준비물 : 사진 1매, 주민등록증 지참(선착순 모집)
- 성남시여성복지회관 ☎729-4151~2, 745-3071~2

◆◆◆ 2005 성남시의회 의장 新·年·辭

『보람과 꿈·희망 의정』 구현...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새해의 힘찬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신년이 지나고 행복과 희망의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성남시가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중심으로 급부상하는 도약의 원년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수도권역의 핵으로 한 발짝 다가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성남시의회 의정 활동을 지켜보아 주시고 성남시 번영과 시의회 발전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지난 해에는 많은 변화의 물결과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일시에 과다하게 부과된 재산세를 소급하여 30% 감액 적용하는 내용의 시세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여 76억원의 재산세를 환급하

여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방세의 과세 자주권 확대를 위해 세원 발굴은 물론 지방세의 제도가 개편되도록 노력하고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도한 조세정책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2005년 성남의 비전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18일 정례회에서 의결 확정된 2005년도 총 1조1,807억원의 예산이 각종 시책 및 복지향상 등 모든 분야에 합리적이며 균형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 지식산업 시설확충에 주안점을 둔 지역경제 활성화분야 추진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어르신·여성들을 위한 복지증진분야, 그리고 풍요로운 문화를 자연과 인간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전통과 현대의 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를 희망하는 푸르른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하는데 모든 힘을 모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 주택의 자체 관리비용으로 충당하여야 할 유지 보수관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지

원보조금을 시예산으로 지원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금년 예산에 60억원을 주민들이 원하는 공동주택의 필요한 부분에 지원토록 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합니다. 제4대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성남시의회를 가장 모범적이며 선진화되고 안정된 시의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4대 후반기의회 출범시 의정방향으로 내걸었던 『보람과 꿈·희망 의정』을 바탕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남의 비전방향과 접목하여 더욱더 의정을 굳건히 다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화합과 신뢰 속에 성남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2005 성남시의회 의정을 다져나가기 위하여,
첫째로, 『열린 의정·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투명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정책개발을 선도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과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과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셋째로, 『의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의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시정 현안사항이나 문제소지가 있는 사안들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성남시의회가 진정한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의회위상 정립을 위해 『의회 내부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 의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충고와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성의 계기로 삼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여건은 수출주도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나 내수경제가 계속 감소되어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웰빙시대”라 하여 행복, 안녕, 복지를 위한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추구하는 사회적 열풍을 보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제2의 IMF를 우려하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에서는 현재 경영 중인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성남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함은 물론, 국내 우수기업을 성남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성남시가 안정되고 균형화된 도시로 부각되도록 만들어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의정방향을 바탕으로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시민여러분께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진실한 충고의 말씀을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성남시의회가 새해의 희망찬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는 화합의 장이 되고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 모두가 책임과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담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을유년 한 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05년 1월 1일
성남시의회 의장 **홍 양 일**

제6회 청소년 영상 아카데미 개최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는 2월 14일(월)부터 26일(토)까지 2주간 '제6회 청소년 영상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아카데미는 실습위주의 단기 교육을 통하여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하는 자리로서 영상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문강사 및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기획과 구성', '촬영 및 편집기술', '수료작품 제작' 등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교

육을 실시한다. 성남시 관내 거주 또는 재학중인 17~19세 청소년과 중3 졸업예정자는 참가할 수 있으며 1월 24일(월)부터 2월 5일(토)까지 접수를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 수정청소년수련관(www.snyrc.net)과 청소년인터넷방송국(www.chamtv.com)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청소년인터넷방송국 ☎740-5280~1

ABN 부모교육 특강

성남시청소년상담센터와 아름방송이 공동주관한 부모교육으로 자녀의 발달적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강좌를 아래와 같이 방영합니다. 자녀교육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의문이나 자녀의 미래 설계를 위

해 도움이 될 프로그램으로 많은 시청바랍니다. 문의: 성남시청소년상담센터(717-2000) 아름방송(710-8935)

♣ 방영시간 • 매주 월 · 목 10:00~11:00, 17:00~18:00(CH5) • 매주 수 · 토 11:00~12:00(CH12)

순서	방영 일자	제 목	강 사
1	2005년 1월 10일~1월 15일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역할 I, II	권이중 원장 한국청소년개발원
2	2005년 1월 17일~2월 5일	자녀의 이미지 관리 I, II 이미지센터	김경호 소장
3	2005년 2월 7일~2월 19일	이제는 부모도 자격증이 필요하다 I, II	김경민 소장 동서상담연구소
4	2005년 2월 21일~3월 5일	청소년과 가족과의 관계 I, II	김용태 교수 트리넷티신학대학원
5	2005년 3월 7일~3월 19일	자녀의 리더십 향상하기 I, II	유동수 교수 고려대 교수
6	2005년 3월 12일~4월 2일	자녀의 꿈과 일에 대해서 I, II	이광호 교수 경기대청소년학과
7	2005년 4월 4일~4월 16일	자녀의 학업지도 I, II	이민규 교수 아주대 심리학과
8	2005년 4월 18일~4월 30일	자녀의 문화와 놀이의 이해 I, II	전효관 부소장 하자센터
9	2005년 5월 2일~5월 14일	미디어와 자녀와의 관계 I, II	이규민 교수 중부대 언론홍보
10	2005년 5월 16일~5월 28일	좋은 TV 프로그램 선택하기 I, II	이정주 간사 서울 YMCA 미디어
11	2005년 5월 30일~6월 11일	학교 폭력의 상황별 대처 방법 I, II	김종기 전 이사장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2	2005년 6월 13일~6월 25일	21세기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 I, II	이상선 전 교장 은행초등학교
13	2005년 6월 27일~7월 9일	대안교육과 인간의 이해 I, II	이용원 사무총장 성남YMCA

* 위 스케줄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커·스 |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4가지만 빼고 음식물쓰레기

소·돼지 등의 털·뼈



패류 껍데기



1회용 티백



견과류 껍데기·핵과류 씨



올해부터 가정 곳곳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에 신경 써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는 바로 매립할 경우 악취 침출수 발생으로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어, 정부에서는 1997년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5년부터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바로 매립할 수 없도록 했으며, 자체시설로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수거하여 자원화(사료, 퇴비화)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에 버리면 안되는 것은 ▲ 소, 돼지 등 육류의 털과 뼈 ▲ 조개 등 패류 껍데기 ▲ 호두 등 견과류껍데기와 복숭아, 살구 등 씨가 단단한 핵에 싸인 핵과류의 씨 ▲ 종이나 천에 포장된 1회용 녹차와 티백이다.

쓰레기 배출방법은 단독주택에서는 전용봉투(노란봉투)에 담아 문 앞에 놓으면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봉투에 담지 말고 음식물용 수거용기에 넣으면 된다.

음식물쓰레기를 소각 생활쓰레기와 혼합배출하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물쓰레기매립금지 제도는 후손에게 보다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것으로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배출해 주어야 한다.

장영희 기자 essay45@hanmail.net

청 소 년

상관사례

자녀의 가출 문제

평소에 온순하던 아이가 공부는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밤늦게 귀가하는 등 여러 가지로 갈등을 빚다가 아버지에게 심하게 야단을 맞고 가출한 후 2일만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었던 자녀의 갑작스런 가출로 많이 놀라고 마음고생도 심하셨지요.

아이들이 가출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시위나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탈출하여 독립과 자유를 획득하고 싶은 욕구의 한 표현으로, 현재 겪고 있는 고통으로부터의 현실 도피와 즐기고 싶은 욕구, 새로운 소속감을 얻고 싶은 욕구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다가 충동적으로 가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혼내기

보다는 이해해주시기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가출을 막을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모님과 자녀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부모님과 자녀간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계유지에 도움이 되는 대화방법은 어머니께서 감정을 폭발시켜서 비난하지 마시고 잔소리나 과거의 일을 들추는 것보다는 최근 자녀의 행동을 사실대로, 그리고 앞으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대안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 있는 불만은 무엇인지 따님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따님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인정해주시고 대화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가출해서 어디에서 지냈는지, 어떻게 보냈는지를 파악하고 가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녀와 의논하시는 일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가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신뢰관계

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친구들과의 관계망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가출을 결정할 때에는 본인의 마음문제도 있지만, 환경적인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가출과 연관된 친구는 있는지, 주로 어울리는 친구들은 누구인지, 가는 곳은 어디인지, 무엇을 하고 노는지 등 친구들의 성격과 연락처를 파악해서 자녀만이 아닌 친구들도 보듬어 안아서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가출이든 습관적인 가출이든 그를 얼마나 따뜻하게 풀어주느냐에 따라 이후의 가출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자녀도 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정선화 기자/성남시청소년상담센터 상담부장 717-2000



고재언의 건강이야기 / 중원구보건소 공중보건의

혈액순환 개선

혈액순환 개선으로 큰 병 미리 예방

몸을 따뜻하게, 부드러운 운동으로 말초혈액순환 원활히 ... 복부·팔다리 혈액순환 원활하면 심장질환·중풍 등 예방에 도움

건강상태와 질병상태의 사이에는 질병이 있지만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있는데 이를 '미병(未病)' 상태라 한다. 한의학에서는 미병을 치료하여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중국의 유명했던 화타나 편작 같은 명의는 병을 잘 치료했을 뿐 아니라 맥을 보아 앞으로 일어날 병도 미리 예측하여 걸리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 어떤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는 환자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혈류의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미리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치료하면 위중한 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특정부위에 울혈이나 허혈상태가 발생하면 노폐물이 배출되

지 않거나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기능장애나 통증이 발생하지만 여러 가지 검사 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세포들이 손상되고 조직의 변성이 일어나서 염증, 종양, 암 등이 발생한 이후에야 진단이 내려지고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명의들은 전통적인 한방진단법인 맥진으로 인체를 표리, 상하, 좌우로 나누어 전체적인 혈액분포를 파악하고 국소적으로 오장육부의 혈액순환장애를 살펴보는 병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알아내었다. 명의들의 높은 경지를 따라가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최근에는 경락기능검사나 한열

진단기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혈액의 분포상태를 파악하여 진단에 응용한다.

평소 몸을 따뜻하게 하고, 딱딱하고 경직된 운동보다는 부드러운 운동을 하여 관절 주위의 경락이 잘 소통되면 말초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복부나 팔다리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심장이나 두뇌로의 압박이 줄어들어 심장질환이나 중풍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특정 부위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혈관을 확장하거나 축소시키는 방법은 혈액의 상대적 편차를 조절할 수 없으므로 자세히 진찰하여 문제가 있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을 사용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다.

분당구 건강관리자 신규 교육 안내

분당구보건소(방문보건센터)에서는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운동요법과 노인 레크레이션 활동 등을 보조하고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활동을 위한 건강관리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 대상 : 분당구내 경로당에서 건강관리자로 활동하기 원하거나,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에 관심 있는 일반인
- 일시 : 2005. 2. 17(목) 오전 10:00 ~ 오후 4:00
2005. 2. 18(금) 오전 10:00 ~ 12:00
- 장소 : 분당구보건소 회의실
- 인원 : 약 100명
- 모집기간 : 2005.1.17 ~ 2.16
- 교육내용 : 노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이해, 노인 치료 레크레이션, 만성질환에 대한 이해,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 체조 시범
- 교육비 : 무료
- 신청 및 문의 : 분당구보건소 지역보건팀 729-5373
분당구 방문보건센터 703-5054



건강지킴이 |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센터내 재활운동실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뇌졸중, 만성 퇴행성 관절염 등 맞춤형 전문 재활서비스 제공



최근 일상생활의 풍요로움이 운동부족으로 이어져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각종 성인병의 유병률을 높이고 있어, 결국 인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뇌졸중을 비롯한 신경계 손상 질환과 만성 퇴행성 관절염 등은 지속적인 관리와 재활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증가와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원구보건소는 관내 장애인

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소외되어 있는 지역 내 만성질환자 및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건강증진센터 내 재활운동실”을 개소하였다.

재활운동실에서는 뇌졸중 및 뇌병변으로 인한 후유장애환자, 만성 퇴행성 관절염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의료장비를 이용, 재활운동과 개개인의 상태에 맞

는 재활운동을 물리치료사가 직접 지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재활의학과)과 협진·협약을 체결하여 월 2회 재활운동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상태를 평가하고 재활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서울보건대학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하여 보조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의 보조기 제작을 의뢰하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재활운동실에 휠체어 등 32종의 재활장비를 갖추고 재활장비를 필요로 하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장비를 무료로 대여하고 사용방법을 지도하며, 재활장비 나눠쓰기 운동도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 3층에 있던 물리치료실을 1층으로 이전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들의 이용이 더욱 용이해졌으며, 근골격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미세전류치

료기 등을 이용한 통증관리와 근골격계 환자들의 운동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보건팀에서는 중풍교실, 관절염 운동교실, 요통교실 등 다양한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지역 내 만성질환자 및 장애인의 사회복귀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풍 운동교실은 매주 화요일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가동범위 운동 및 근육신장운동, 수족침 대체요법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관절염 운동교실**에서는 거동이 가능한 류마티스 및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근육강화운동, 통증관리, 이완요법 등 관절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요통 운동교실**에서는 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요통의 관리, 운동요법, 테이핑 요법 등을 교육하여 환자 스스로가 요통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관절염 수중 운동교실**과 **타이치 운동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문의 : 중원구보건소 지역보건팀 729-5272

초등학교 입학 전 2차 홍역예방접종 해아



2005년 초등학교 취학예정 아동은 만

4~6세에 실시하는 2차 홍역(MMR) 예방접종을 받고 <2차 홍역예방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초등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1998.3.1~99.2.28 출생자)와 취학 의무예정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은 취학통지서에 첨부된 2차 홍역 예방접종 통지서 및 증명서에 확인을 득한 후 해당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2005년도 취학 예정아동 대상자 중 관할 보건소에서 2차 홍역예방접종을 완료한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올 1월까지 접종 증명서를 개인별로 우편발송한다.

문의 : 수정구보건소 729-5175
중원구보건소 729-5272
분당구보건소 729-5375

포 · 커 · 스
겨울방학 결식학생 급식지원

“우리 시 도시락은 알차요”

「성남자활후견기관」에 위탁 운영... 질 좋고 양 많고 직접 조리

경기특미로 지은 쌀밥에 돈까스, 해초무침, 참치김치볶음, 그리고 김과 요구르트 및 우유. 지난 1월 20일 성남시에서 겨울방학 중 결식학생에게 지급한 도시락 메뉴이다.

“집에서 먹는 밥처럼 질 좋고 양 많고 칼로리도 만점인 도시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김치는 무공해 유기농 배추로 만든 김장김치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안 쓰고 저희가 직접 조리한 음식을 사용합니다.”

성남시의 결식학생 급식지원을 위탁 운영하는 「성남자활후견기관」 강대승 부장의 말이다. 우리 시에서 올 겨울방학 동안 급식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 결식학생은 1,860여명. 이 가운데 도시락이 필요한 학생은 1,380명선이다. 도시락 급식을 지원하는 다른 4곳도 있지만 이곳에서만 하루에 1,100여명분의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므로 한 끼당 2500원의 급식비 중 2,300원 이상을 식재료비로 충당해 양질의 도시락을 공급할 수 있다. 자활후견기관이다 보니 그곳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일부와 기타 비품 등을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특히 이 아주머니들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

활수급자이다보니 같은 처지의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마음에 한껏 정성을 쏟는다.

게다가 최근 조선포텔에서 20년간 조리사 경력을 쌓은 이성남씨가 자원봉사로 조리도와 함께 도시락 식단을 짜주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 끼 850~1,000kcal에 맞는 식단표를 2월말까지 작성해 놓고 있는 이 기관은 1식 3찬에 김, 요

“조식, 중식, 석식 중에서 신청하는 대로 배달하고 있으며 하루 2끼를 먹는 아이도 있어요.”

‘찬 도시락’, ‘이틀치 배달’의 오명을 뒤집어 쓸 때면 할 말도 많지만 우리 가까이 무료 급식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어 정말 마음이 뿌듯하다고 강 부장은 얘기한다. 이들에게 도시락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그마한 정이다.

박경옥 기자
(qkdl9090@hanmail.net)



구르트는 매일 지급하고 월·화·목·토요일에는 우유, 수요일에는 기장쌀밥, 토요일에는 흑미밥과 과일, 일요일에는 빵과 우유, 과일을 각각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배달이 생명인 이곳. 7대의 차로 도시락 포장·배달조가 13명이 움직인다. “막상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는데 문을 두드려도 안 나오는 경우 문고리에 걸어두고 갈 때면 참 마음이 아프다”며 혹시나 이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많다고 강대승 부장은 말을 잇는다.

- * 도시락 신청문의: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담당
- * 주간 식단표(1.25~1.31)
- 1.25(화) 닭도리탕, 부추전, 겉절이
- 1.26(수) 삼치조림, 떡볶이, 무생채
- 1.27(목) 제육볶음, 연근조림, 참치김치볶음
- 1.28(금) 닭다리튀김, 시금치, 오징어무침
- 1.29(토) 탕수육, 감자당근조림, 오이피클
- 1.30(일) 컵케익, 우유, 과일
- 1.31(월) 코다리찜, 콩자반, 도라지·오이생채



*이탈의 요리~

호박식혜

— 재료 및 분량

호박 1/2덩어리(다듬은 호박 1kg - 물 1kg), 엿기름 600g, 밥 600g, 백설탕 600g, 생강 1쪽, 잣, 잘게 썬 대추 약간

— 만드는 법

- 1) 엿기름은 미지근한 물을 10배가량 붓고 주물러서 씻어 체에 거른 후(2~3회반복) 이것을 2시간 정도 둔 다음 윗물만 따라 받아둔다.
- 2) 손질한 호박은 잘게 잘라 동량의 물을 넣고 완전히 풀어지게 푹 끓인 다음 뜨거울 때 체에 밟치고 으갠다.
- 3) 밥통에 1)의 엿기름물 1/2를 붓고 밥을 넣은 다음 6시간 정도 보온상태로 두어 삭힌다.(잘 삭힌 식혜는 식혜 물에 밥알 4~5개가 동동 뜬 상태다.)
- 4) 3)의 밥알은 건져 찬물로 여러 번 헹구어 냉장고에 둔다.
- 5) 솥에 나머지 1)의 엿기름물을 넣고 3)의 삭힌 식혜물, 2)의 호박물과 설탕을 함께 넣어 거품을 걷어 가면서 은근히 끓인다.(1시간 정도)
- 6) 5)를 식힌 다음 밥알, 잣, 잘게 썬 대추를 띄워낸다.



— 호박의 효능

호박은 호박살(과육)뿐만 아니라 잎, 줄기와 꽃, 씨, 껍질, 덩굴까지 어느 하나 버리는 것이 없는 약알카리성 식품이다. 무엇보다 호박은,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당근, 고구마와 함께 하루 반 컵 정도의 높은 호박을 별도로 먹으면 흡연으로 인한 폐암의 위험을 반감시킬 수 있다고 한다. 호박의 당분은 소화가 잘 되므로 회복기의 환자나 위가 약한 사람에게 좋다. 그래서 위장이 약하고 마른 사람이 꾸준히 먹으면 위가 강화되고 살이 찌는 효과를 얻는다. 또한 비만증인 사람의 다이어트, 당뇨나 산후의 부기를 빼는 데에도 높은 호박을 따를 만한 식품이 없다. 이는 호박이 살을 찌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동시에 몸 안의 수분이나 노폐물을 잘 빼주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호박즙이나 호박죽을 섭취할 경우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이유는 호박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체내의 이노 작용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수박이나 커피, 또는 술을 먹었을 때 자주 소변이 마려운 것과 같은 원리다.

신 미 혜

서울보건대학 조리예술과 교수(한식)

또 호박은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고 호박의 펙틴 성분은 식물성 섬유소로, 이노작용을 돕고 담석증 예방에도 좋다. 그 밖에도 높은 호박은 성인병이나 변비, 설사, 기침이나 감기, 냉증, 피부보호, 야맹증에도 도움이 된다.

— 호박의 선택법

호박이 누런 빛깔을 띠는 이유는 호박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 색소인 카로틴 때문이다. 이 성분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꾸준히 발표되면서 호박의 약리 작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종종 호박 표면에 하얀 가루분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농약이 아니고 자체에서 생긴 당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많이 생길수록 단맛이 좋은 호박이다. 따라서 높은 호박을 고를 때는 표면이 매끈하면서 누렇게 잘 익은 것, 들어서 무거운 것이 좋다. 속이 딱 차서 과육이 많아 달고 맛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껍질이 깊이 패인 것, 흰 가루분이 많이 생긴 것 등을 골라야 약효가 뛰어나고 당도 높다. 또 누런색이 진할수록 몸에 좋은 카로틴이 많다. 호박은 단백질, 탄수화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E 등 다량의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의 보고다.

200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행정 · 소방 분야

주 5일 근무제 확대 시행
○ 2005년 7월부터 주 5일제 근무제가 30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 2005년 1월 17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 발급수수료는 주소지 구분 없이 1통에 600원으로 통일

징병검사·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 선택 확대
○ 병무청이 결정하던 공익근무소집요원의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이 인터넷으로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선.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도 본인이 직접 선택. 우선 새해에는 방학기간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2006년부터 의무자 전원과 전 지역으로 확대

119 구급대 응급환자만 이송
○ 응급환자가 아니거나 약의적으로 119 구급대를 요청하면 구급 대원이 판단해서 이송을 거부

보건 · 복지 · 보호 분야

저소득층 지원
○ 2005년 1월부터 최저 생계비가 평균 8.9% 오르고,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현행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의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의 혈족으로 축소

장애인 지원
○ 2005년 1월부터 장애수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인 1~6급 전체 장애인까지 확대 지급되고 의원, 치과의원, 이·미용원, 교도소 등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 보육료 감면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자 또는 그 친족, 기타 부모의 보육비용을 경감해 주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원 대상가구 및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수시신청

암 지원
○ 2005년 중에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이 12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확대

건강보험 확대
○ 2005년 중에 MRI(자기공명영상촬영)와 소이증, 안면화상, 연골 무형성증, 인공와우 등이 보험 적용대상에 신규 포함되고 자연 분만과 미숙아 입원진료 등에 대해선 환자가 진료비의 20%를 내던 것을 면제
○ 1월중에는 회귀·난치성 질환 가운데 척추 갈림증 등 25개 질환에 대해 환자 부담액이 줄어들고, 상반기 중에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의료 지원
○ 2005년 1월 1일부터 1인당 최고 300만원을 주던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출생 시 체중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
○ 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회귀·난치성질환이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

의료급여 신청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의 회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2세 미만 아동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개인급여)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양부모가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동사무소 의료급여 신청

수두 필수 예방접종 대상
○ 2005년 1월 1일부터 수두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돼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 등 빈곤층은 일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

교육 분야

월 1회 주 5일 수업 시행
○ 주 5일 근무제에 맞춰 올해 1학기부터 전국 1만300여개 학교에서 주 5일 수업이 월 1회 이뤄지고 2006년 이후 해마다 단계적으로 월 2~4회로 증가

도로 · 교통 분야

과적요구 화주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2005년 2월부터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를 신고할 경우 운전자에게 200만원의 포상금 지급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우선지구』 지정
○ 2005년 하반기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주택가 이면도로가 “보행우선지구”로 지정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개선
○ 지체장애인이 핸들 조작력 등 운동능력 측정에 2005년 4월부터는 이에 불합격하더라도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 등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대물보험 신설
○ 2005년 2월 22일 이후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한도가 상향되고 대물보험의무가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물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지급액도 상향 조정된다. 대물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이륜 자동차는 10일 이내 3천원, 10일 초과한 경우 1일마다 600원, 최고 10만원, 자가용자동차는 10일 이내 5천원, 10일 초과 1일마다 2천원, 최고 30만원이며, 건설기계 및 사업용 자동차는 자가용 자동차와 같다.

재정 · 금융 분야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 연말 소득공제 때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현금영수증제, 복권제 시행
○ 2005년 1월부터 5,000원 이상 현금구매 시 매장에서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 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과 복권 추첨 혜택이 부여

소득세 특별공제 증빙제출 간소화
○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관련 증빙서류로 인터넷 영수증도 인정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선
○ 근로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급여의 10%를 넘게 지출하면 그 초과 금액의 15%를 공제. 또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대상에 의료비 등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비용,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구입비 등이 추가 공제

1가구 3주택 양도세 종과세
○ 2005년 1월부터 1가구 3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60%에 해당하는 양도세가 부과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업의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일이 사라짐

환경 분야

음식물류 폐기를 직매립 금지
○ 2005년 1월 1일부터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곧바로 매립할 수 없으며, 소각·퇴비화·사료화 처리한 후 잔재물만 매립해야 한다.

밀렵 야생동물 먹는 사람도 처벌
○ 밀렵이나 밀수된 수달, 반달가슴곰, 산양, 너구리, 고라니 등 32종의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내에 서식하는 뱀, 개구리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수출입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 · 기업 분야

소포배달 손해배상 상한 확대
○ 2005년 1월부터 소포 배달과정에서 발생한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한도가 종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전화·모사전송을 통한 광고 발송 시 수신자 사전 동의 의무화
○ 2005년 4월부터는 사전에 광고수신을 허용한 사람 외에는 광고 발송을 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 시간대(밤 9시~오전 8시)의 광고성 메일 발송도 제한

과학 · 정보통신 분야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 2005년 1월 중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장설립 승인기한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공장설립승인 시 협의사항에 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10일내 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
○ 2005년 하반기부터 “첨단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불법기술유출 처벌대상이 기업에서 대학, 연구소로 확대되고 국가핵심기술이 정부에 의해 지정·관리된다.

국가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만 처분하던 것을 대여 받은 자도 처분 받게 된다.

문화 · 여성 · 청소년 분야

스포츠경영 관리사제 도입
○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하반기에 “스포츠경영 관리사” 국가 기술자격 제도 도입

청소년증 발급 확대
○ 청소년증 발급대상이 기존 13~18세에서 9~18세로 확대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 2005년 2월 10일부터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 인권을 향상시키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전면 시행

돌봄아이 보육료 지원
○ 2005년부터는 두 자녀 이상을 동시에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돌봄아이 연령을 기준으로 0~1세는 6만원, 2세는 5만원, 3세 이상은 3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는다. 단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4인 기준으로 318만원까지 혜택

장애아 무상 보육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월 29만9천원 지원

만 5세아 무상 교육
○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80% 이하까지 확대된다. 또 지난해까지 지역별·시설별로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던 방침을 바꿔 2005년부터는 일원화된다. 즉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단가는 15만3천원으로 도시지역 정부지원시설, 민간시설, 농촌지역 가릴 것 없이 모든 시설에 전액 지원

공공 공연장에 무대예술 전문인 의무 배치
○ 기초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객석 500석 이상의 공공 공연장에 무대예술 전문인이 의무적으로 배치

부동산 분야

주택가격 공시제도
○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전국 1,308만5천가구의 집값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2005년 4월 도입하여 건설교통부가 아파트와 다가구, 단독, 다세대, 연립 등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 30일 관보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다세대·다가구 가구별 표준면적 표시 의무화
○ 2005년 상반기부터 19가구 이하 다세대, 다가구주택도 분양시 가구별 면적(명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화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이 200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들로 하여금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이 근절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선진화, 투명화 되는 효과 기대

하나

분당구 분당동
정재두



분당에는 중앙공원이 있다

뉴욕 맨하탄에 센트럴 파크가 있듯이 분당에는 중앙공원이 있다. 센트럴 파크가 없는 맨하탄을 생각할 수 없듯이 중앙공원이 없는 분당은 생각하기조차 싫다. 그만큼 중앙공원이 좋다는 얘기일 것이다.

우스개 소리로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 “천당 위에 분당이 있다”는 말도 분당이 살기에 좋다는 뜻인데 그런 말이 나온 배경에는 중앙공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분당동 셋별마을 집에서 서현역까지 걸어서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다. 편도 20~25분 정도를 걷기에는 조금 먼 거리지만 일부러 이용하는 것은 중앙공원을 통과하는 길이 좋아서이다. 큰길을 따라서 가면 거리가 단축되지만 굳이 중앙공원을 통과하는 산길이나 분당천을 끼고 가는 도로를 걸어가고 싶어서이다.

조깅하는 아주머니, 달리기하는 젊은이, 산책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어린이들, 자전거

를 타는 사람... 운이 좋으면 풀숲에서 토끼들을 만날 수 있고 분당천에 살고 있는 오리떼들도 볼 수 있으니 이런 일상의 모습들은 정말 평화로운 한 쪽의 그림이다.

봄, 여름, 가을 휴일에는 서울, 용인, 광주, 수원 등 인근 지역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리는 인기 있는 명소가 되어 버렸다. 이런저런 이유로 멀리 나가지 못한 알뜰과 가족끼리 가벼운 마음으로 돛자리를 펴놓고 준비해온 음식물을 먹는 가족 단위가 많다. 그 때문에 중앙공원 사방둘레에 자동차 주차가 허용되는 휴일에는 때 아닌 주차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혼잡이 싫지가 않다. 중앙공원이 그만큼 좋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요즘은 투호, 널뛰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기구까지 갖추어 놓아서 중앙공원이 더욱 사랑받고 있다. 이런 멋진 공원이 있는 곳에 내가 살고 있으니 난 아마도 행복한 사람이다.

둘

수정구 태평동
김동환



“어머...저 돼지 좀 봐!”

몇몇 가재도구들이 뒤엉켜, 어린 눈에 하나의 섬처럼 흙탕물로 변한 강 위를 떠가는데, 그 위에 돼지 한마리가 불안하고 힘겹게 매달려 있었다.

“사람도 떠내려가는데, 그깟 돼지는...”

참으로 무심하게도, 그 돼지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은 어린 나 하나였고, 대부분의 어른들은 자연이 만든 수해 앞에서 무력한 자신들을 탓하기도, 혹 그 돼지를 보며 소주 한 잔을 떠올렸을지 모르겠다.

어린 날, 게릴라 폭우라고 명명된 폭우가 휩쓸고 간 어느 소도시에서의 추억 한 자락이 문득 브라운관 속 처참한 화면과 오버랩 되며 떠오른다.

‘쓰나미(지진해일)’가 연일 뉴스앵커들의 멘트속에 묻어나며, 가재도구가 아닌, 분명 며칠 전까지 이 지구의 공기를 같이 호흡했던 사람들이, 어린 날 봤던 영겨있는 가재도구처럼 그렇게 자연의 대재앙 앞에 채 견지지 못한 채 부패해 가는 모습을 보는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고도 안타까울 뿐이다.

특히나 이번에 큰 피해를 본 피피섬은 몇 년 전 배낭여행을 떠났을 때 들렀던 곳이었다. 눈처럼 하얀 백사장에 누워 몸을 굽던 서양사람들에게 뭐 하나라도 팔

기 위해 까만 눈을 굴리던 어린 친구들이 있었던 곳. 그 눈망울이 하도 이뻐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었더니 날 특히 잘 따라, 배낭 안을 토크 털어 나온 초코렛 하나라도 더 주고 싶었던 그 눈 맑던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엄청난 천재지변 앞에서 그 친구는 무사할까? 머리에 삶처럼 무거운 코코넛을 이고 팔던 아줌마들은? 제대로 의사소통도 되지 못해, 그저 피식 웃어주는 웃음으로 흥정했던 사람들. 자연을 닮아, 소박했던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어느 한 순간에 자연으로 돌아가게 될 줄 그땐 정말 몰랐었다.

파란색 물감같고, 석양지는 하늘은 붉은 봉선화 같다며 탄성을 자아내며, 언젠가 다시 고향 한번 더 들려 보리라 마음먹었던 그 아름다운 곳이, 바로 그 아름다움을 가능케 했던 바다의 심술로, 한 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린 브라운관 속 화면들은 그래서 아직도 낯설고 두려울 뿐이다.

전 지구적 재앙이라는 성난 자연앞에, 인간이란 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새삼스럽게 깨달으며, 2004년을 조용히 접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2005년을 열어 본다. 올핸, 제발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길 소망한다.

셋

중원구 은행2동
김승



나 어릴적 꿈 “판사”

2005년 한 해가 밝았다. 다들 새해 새로운 목표와 꿈을 가질 것 같다. 나 역시 지켜질지 어떨지 모르지만 몇 가지 다짐을 적어두었는데, 그 스케일의 소박함에 스스로 좀 웃음이 난다.

“전 커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되겠습니다.”

짹짹...

초등학교 5학년, 난생 처음 TV라는 곳에 출연했다. 당시 펍 유명한 초등학교생 (그때는 국민학생이라 불리워졌던)들 대상 퀴즈 프로그램이었는데, 집에서 곧잘 그 프로그램을 보며 잘 맞는 날 보고, 다소 극성이셨던 엄마가 담임선생님 이랑 음모를 꾸며, 나도 모르게 신청이 되어 있어 출연을 해야 했다.

선생님까지 끼여든, 완전범죄라 감히 그 앞에서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런 일을 벌였냐고 투정을 부릴 수도 없었다. 방송국에 도착하니, 순간 오금이 저려올 정도로 긴장이 됐다. 그리고 방송국의 조명이 켜지고, 내 옆에 앉은 아이들 역시 나 못지않게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가운데 브라운관에서만 봤던 사회자 아저씨가 실물로 보니 펍 작아 보인다는 생각을 할 찰나에 내 소개를 해야 하는 순서가 되었다.

그때 자기 소개는 ‘○○ 초등학교(국립) ○○ 반 ○○ 번 누구이고, 앞으

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작은 포부를 밝히는 것이었는데 내 입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온 내 꿈은 ‘판사’였다.

사실 그때까지도 판사가 뭘지도 잘 몰랐고, 실상 그것은 내 꿈이 아니라 아빠의 꿈이었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판사라는 것이 한 묶음의 관용구처럼 어린 내게 곧잘 그런 말씀을 하신 터라, 긴장한 가운데 관성처럼 그 말이 나왔었다. 그 이후, 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판사가 되어야 하는 아이가 되어 버렸고 그런 날 자못 흐뭇하게 생각하는 아버지 앞에서, 난 그게 뭘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른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난 고등학교 때 이과를 선택했고, 판사가 될 수 없는 길에 들어서 버렸다. 사실 문과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되기 위한 그 지리하고 험난한 길에 뛰어들었을 것 같지도 않았지만...

판사, 이따금 신문이나 방송에서 판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난 법을 집행하는 엄중한 법관의 모습이 아닌, 발랄한 초등학교생의 양증맞고 대채 없는 꿈 하나가 떠올라 심껏 웃곤 한다.

참, 그때 나간 퀴즈 프로그램에서 난 2승까지 거둬 펍 잘난 아들 두었다고 한동안 부모님 체면을 세워 주었으니, 지켜드리지 못한 그 꿈에 대한 작은 보답은 한 셈이었다.

넷

수정구 신흥1동
이수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우리 동네 딸 부잣집 아주머니는 자가용이 3대나 있다 보니 주차문제로 이웃들과 얼굴 붉힐 일이 종종 있다. 한두 번은 늦은 밤에 동네가 시끄럽도록 싸워도 한 동네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었다.

그러나, 어느 일요일부터가 딸 부잣집 아주머니의 딸 자동차 3대 중 1대가 우리 집 골목 앞까지 주차되어 있는 게 아닌가. 가족이나 아이들이 뛰어 놀 공간이 없는 좁다란 길목에서 대문 앞을 꽉 막고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는 눈의 가시처럼 보였다.

마침 외출하시려는 딸 부잣집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다가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주차한 것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게 되었다. “미안하게 됐네.” 정도의 사과를 하지 않을까 했던 예상과 전혀 다르게 그 아주머니의 태도는 상식 밖이었다. 단지 차가 있는 앞집 아저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차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차가 없는 사람집에 굳이 따로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었다. 꼭 한 동네에서 오래 사신 아주머니가 정해 놓은 규칙이라도 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끝내시는

게 조금은 어이가 없고 실망스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워낙 나이 드신 동네 어른이시라 따지고 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자는 생각에 그만 집으로 들어왔었다.

그러나, 어느 때와 같은 어느 월요일 아침, 또 다시 딸 부잣집 아주머니의 싸우는 소리가 들려와 밖으로 나가 보았다.

“어쩔 차만 주차했다가 출근하고 나면 이 지저분한 쓰레기는 판 사람이 치우란 소리야?”

“그럼, 이 쓰레기와 우리 차와 무슨 상관이라고 아침부터 난리야?”

우리 집 지하에 사시는 할머니와 딸 부잣집 아주머니가 차가 빠지고 난 자리에 널려있는 쓰레기 때문에 싸우고 계신 거였다. 한참 동안 두 어른의 싸우는 모습을 구경하면서 또 한번 딸 부잣집 아주머니의 이웃을 배려하는 미덕이 없으신 것 같아 착잡한 마음이 들었고, 어쩌면 처음부터 쌓였던 나쁜 감정이 풀리지 않은 채 쌓이고 쌓이다 보니깐 사사건건 신경전으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따라 머리 속으로나마 딸 부잣집 아주머니의 고개 숙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게 된다.

탐방 | 수진 2동 주민자치센터 인라인 스케이트반



“자녀들과 함께 인라인을 배워 보세요”

가족의 심신단련과 화합, 그리고 체력증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금상첨화의 레포트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게 즐길 수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

롤러 블레이드(Roller Blade)라고도 불리는 인라인 스케이트는 바퀴가 일렬로 달려있는 스케이트를 말하는데 언제부터가 신세대 젊은이들이 하나 둘씩 타기 시작하던데 지금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게 된 운동이다.

지난 연말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에서 인라인 댄스를 선보여 우수상을 수상한 수진 2동 인라인스케이트반은 주민자치센터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라인 스케이트반을 운영하고 있다.

주변에 탄천과 실내체육관이 있어 사계절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기에 좋은 환경인 수진 2동은 지난 2003년 12월 방학 특강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라인 반을 개설,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현재는 어린이반과 어머니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수진 2동 인라인반을 통해 200여명의 주민이 인라인을 즐기게 됐고, 현재는 어린이와 주부 35명의 회원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천 인라인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어머니반 회원 7

명이 21km를 완주하기도 했다고.

‘쌩쌩’ 바람을 가를 때 피부로 직접 느껴지는 짜릿함이 인라인 스케이트의 매력이라고 말하는 이근정(35) 회원은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정했는데, 개인적으로 강습을 받으려니 강습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망설이고 있는데 마침 주민자치센터에서 인라인반을 개설해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지요.”라며 무엇보다 인라인 스케이트는 가족이 함께 건전하게 즐기며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예찬한다.

노경래(33) 강사는 인라인이 배우기 쉽고 하기 편한 운동으로 서서히 가족 레포츠로, 대중적인 운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속도감이 느껴지는 운동이다 보니 넘어져 아스팔트에 긁히거나 손목 또는 발목이 골절되는 경우들이 있다며 “헬멧이나 보호대(팔꿈치, 무릎, 손목, 발목) 착용은 기본이고, 넘어지는 요령, 정지하는 요령 등 철저한 안전 교육과 남을 배려하는 인라인을 타며 지켜야 할 에티켓을 지킨다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운동이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인라인 스케이트가 대중적인 운동으로 자리잡는 데는 스케이트와 보호대 등의 일정 장비만 구입하면 추가로 경비가 들지 않는다는 경제성과 운동량이

높아 다이어트와 체력 증진의 효과가 높다는 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야외운동으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어 더욱 빠른 속도로 동호인 수가 늘어나는 중이라고도 말했다.

1~2개월만 배우면 장거리도 가능해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탄천변을 따라 한강까지 로드런(자전거 도로나 일반 도로를 따라 장거리로 달리는 것)을 즐기기도 한다는 회원들은 우리 지역은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어서 자연을 느끼며 인라인을 탈 수 있는 곳이 많으며 분당의 율동공원, 중앙



공원도 인라인 타기에 좋은 곳으로 소개했다.

노경래 강사는 앞으로 중급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재미있는 기술연수와 함께 올해 국제마라톤대회에 3회 이상 출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시원함에 만만치 않은 운동량, 특히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가족이 함께 즐기는 인라인 스케이트, 이를 통해서 가족의 심신단련과 화합, 그리고 체력증진을 동시에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방학을 이용해 자녀들과 함께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워보면 어떨지...

문의: 수진 2동 주민자치센터 737-2870

정경숙 기자(chung0901@hanmail.net)

성남에 파크골프장 건립

탄천 둔치에 2천여평 규모... 올 4~5월 착공, 하반기 완공예정

분당구 탄천 둔치에 신형 레포츠인 파크골프장이 조성된다.

시에 따르면, 분당구 탄천 둔치 2천여평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키로 하고 사업비 5억원을 새해 예산에 편성하였다.

시는 이에 따라 일본 등의 해외시설 견학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4~5월 경 착공,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시는 탄천 파크골프장이 호응을 얻을 경우 판교 택지개발 지구 내 체육공원(운중동)에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크골프는 골프와 게이트볼 경기규칙이 혼용된 것으로, 소규모 코스(가장 긴 파5 홀은 100m, 파3 홀은 30m 안팎)에서 한 개의 클럽과 공을 사용해 홀을 도는 신종 레포츠이다.

일본에서는 여성, 장애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 한강시민공원과 용인 양지 파인리조트, 평창 보광휘닉스 등에서 운영 중이다.

문의: 체육청소년과

시설관리팀 729-3930~1



파크골프(parkGolf)란?

파크골프는 말 그대로 공원에서 치는 골프다. 일반골프와 차이가 있다면 작은 코스에서 로프트가 전혀 없는 클럽으로 큰 볼을 때려 뜨거나 멀리 가지 않아 위험하지 않다. 또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쉽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파크골프장은 대략 3,000평(축구장 2개)이면 18홀을 지을 수 있다. 특히 공원 내에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버려진 하천부지 등을 활용하고 골프장처럼 농약을 칠 필요도 없어 유휴지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레포츠로 각광받고 있다.(경향신문 2003년 11월 27일자)

파크골프의 규칙은 일반 골프와 대동소이하지만 장비는 간단하다. 감나무 헤드와 금속 샤프트로 만든 클럽 한 개에 플라스틱 공, 고무 티만 있으면 OK. 공

은 지름 6cm로 일반 골프공(약 4.2cm)보다 크다. 공은 내부가 플라스틱으로 차있어 하늘로 뜨지 않고 굴러가는 듯 낮게 깔리는 게 특징. 홀은 파 3에서 파 5까지 있고 홀 간 거리는 20~100m이며 66타가 파, 9홀을 두 번 도는 18홀 정식경기를 하는데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면 충분하다. 일본엔 900여개의 파크골프장이 있으며 140여만명의 동호인이 즐기고 있다.(동아일보 2004년 3월 10일자)

파크골프는 3세대가 즐길 수 있는 패밀리스포츠, 안전한 실버스포츠, 버려진 땅을 활용하는 친환경적인 레저스포츠로 관광자원은 물론 교육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마에하라 IPGA 이사장 인터뷰중)